

보도시점 : 2023. 6. 21.(수) 11:00 이후(6. 22.(목) 조간) / 배포 : 2023. 6. 21.(수)

원팀코리아, 한-사우디 협력 성과 높인다

- 6월 21일부터 원희룡 장관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 사우디 파견
- 건설 인프라, 플랜트, 스마트시티 등 총괄 부처 최고위층과 밀착 외교
- 원 장관, 마르잔 플랜트 건설 현장 찾아 근로자 격려, 진출기업 간담회도 마련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6월 21일(수)부터 6월 25일(일)까지 사우디 아라비아에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를 파견한다고 밝혔다.
 - 이번 방문은 주택협력 포럼('22.11), 모빌리티 혁신 로드쇼('22.11, '23.5) 등 양국 협력 플랫폼에 참여한 원팀코리아 기업들이 그간 축적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요 협력 분야인 건설 인프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우디 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사업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.
- 6월 22일(목) 원 장관은 도시농촌주택부,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와 만나 건설 인프라, 플랜트 등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.
 - 또한 사우디 비전 2030에 따라 디지털전환,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, 네이버에서 도시농촌주택부와 체결한 디지털전환 협력 MOU('23.3)의 후속 사업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고,
 - 사우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대영채비(주)와 사우디 충전 회사(icharge) 간 협력 MOU 체결식에도 참석하는 등 IT,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.
 - 6월 23일(금) 원 장관은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마르잔 플랜트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고, 사업 동향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다.
- 원 장관은 “이번 원팀코리아 파견은 그간 쌓아온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 - “G2G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 발주정보 및 컨택 포인트를 적극 제공하여 양국 민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, 협력 플랫폼을 지속 마련하여 원팀코리아의 경쟁력과 혁신 기술을 홍보함으로써 사우디의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	책임자	과 장	우종하 (044-201-3526)
		담당자	사무관	곽인영 (044-201-3530)
			사무관	김기욱 (044-201-3528)

